

#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신은미<sup>1</sup>, 이종우<sup>2\*</sup>, 이화성<sup>3</sup>

<sup>1</sup>한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sup>2</sup>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sup>3</sup>아원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Self-esteem: Focusing on the Double Medi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Eun-Mi Shin<sup>1</sup>, Jong-Woo Lee<sup>2\*</sup>, Hwa-Sung Lee<sup>3</sup>

<sup>1</sup>Academic and Research Professor, Hanseo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Jeonju University

<sup>3</sup>Director, Awon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요약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북도 C시와 전라북도 J시 대학교에서 편의표집한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2019년 11월 1개월간 실시하였고, 분석은 SPSS Win. 25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적용된 통계기법은 평균비교분석(t-test, One-ANOVA),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PROCESS Macro 모델 6번을 활용한 이중매개효과분석이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자아존중감은 교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이 다른 전공계열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가족건강성,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이중매개효과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이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대학생, 이중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in the link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1 month in November 2019, targeting 340 students conveniently sampled from C city in Chungcheongbuk-do and J city in Jeollabuk-do,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Win. 25 and SPSS PROCESS Macro. The applied statistical techniques were mean comparison analysis (t-test, One-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No. 6 to analyze the double mediating effect.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First,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higher in education major than in other majors.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amily streng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Third, as a result of the double mediation effect analysi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double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enhance the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by utiliz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Key Words : Family strength,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efficacy, College students, Double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ong-Woo Lee(jwlee@jj.ac.kr)

Received January 28,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March 1,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 1. 서론

청소년 시기는 심리, 신체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내부적 가치관과 외부적 환경의 충돌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1].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는 청소년들의 필수적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2].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도 인지, 사회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충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며 그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3].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심리적 체계이다[4]. 구체적으로 개인이 평소에 자신에 내리는 평가라고 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능력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라고 주장하였다[5].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성적 평가로 자기개념(Self-Concept)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6].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비롯하여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성숙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학교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밝혀졌다[7-11]. 최성에[8]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서경선 등[9]은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환 등[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김민하 등[11]은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에 주목하였다.

유영주 등[12]은 가족건강성을 개인의 발달과 자율성을 도모하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행복하고 가족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족건강성은 정서적 유대감, 가족 간 의사소통, 가족 간의 문제해결능력,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12].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은 그들의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대인관계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과 사고, 행동을 상호 공동 목표로 조정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 및 지속시키게 한다[14]. 이는 대인갈등 상황 속에서 해결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이 평소 경험하는 가치와 생애 주기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가족건강성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16]. 즉, 특정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조직 및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개인의 내재적 심리 변수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대인관계능력은 외부 환경과의 소통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최성에[8]는 그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아 발달 과정에서 건강한 자기 능력에 대한 긍정적 믿음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감을 지니게 하는 주요한 변수이다.

상술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단편적 관계만을 다루었으며 두 변인 간의 매개변수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매개변수로 개인 내재적 심리와 타인과의 관계를 동시에 투입하였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청소년으로 하여,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가족건강성,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개선시키고 이에 수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의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북도 C시와 전라북도 J시 대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편의표집하였으며, 201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개월에 걸쳐 조사가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조사원이 설문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약 500명의 학생에게 구글 설문지와 연동하는 QR 코드를 배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회수한 설문지 372부 중 응답 누락과 동일 응답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4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이 145명(42.6%), 여성이 195명(57.4%)으로 여학생이 많았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69명(20.3%), 2학년이 72명(21.2%), 3학년이 132명(38.8%), 4학년이 66명(19.7%)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 4학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전공계열은 보건·약학계열이 140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 66명(19.4%), 예체능계열 57명(16.8%), 교육계열 54명(15.9%), 이공계열 23명(6.8%)의 분포를 보였다.

### 2.2 연구도구

#### 2.2.1 가족건강성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유영주(1995)가 제작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Family Strengths Scale: KFSS)’를 사용하였다[17]. 이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척도이다. 총점 합이 높을수록 가족건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7로 나타났다.

#### 2.2.2 대인관계능력

대학생의 대인 관계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과 Reis(1998)가 개발하고 김창대와 김수임(2001)이 번안한 대인 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8]. 이 척도는 처음 관계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총 4점 Likert척도이다. 총점 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2.2.3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운아(201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9].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척도이다. 총점 합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 2.2.4 자아존중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Self-Esteem Scale)을 하유진(2007)이 수정·보완하여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사용하였다[20,21].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척도이다. 총점 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6로 나타났다.

### 2.3 자료분석

설문지를 수집한 후 SPSS Win. 25에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평균비교분석( $t$ -test, One-ANOVA)으로 분석하였고, Duncan으로 사후검정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모델 6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주요 변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자아존중감이 성별, 학년 및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비교분석인  $t$ -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853, p<.01$ ). 즉, 교육계열의 자아존중감이 보건·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및 이공계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t=-.358, p=.721$ )과 학년( $F=1.705, p=.166$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lf-esteem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M	S/D	F/t	Duncan
Gender	Male	145	3.57	0.77	-.358 ( $p=.721$ )	N.S.
	Female	195	3.59	0.69		
Grade	Grade 1	69	3.65	0.66	1.705 ( $p=.166$ )	N.S.
	Grade 2	72	3.71	0.69		
	Grade 3	132	3.54	0.75		
	Grade 4	67	3.46	0.74		
Major field	Education	54	3.93	0.64	3.853** ( $p=.004$ )	A
	strength and pharmacy	140	3.50	0.71		B
	Arts and Physical Education	57	3.54	0.74		B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6	3.51	0.70		B
	Science and Engineering	23	3.58	0.75		B

\*\* $p<.01$

### 3.2 가족건강성,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그 결과 가족건강성,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family strength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Family strength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efficacy	Self-esteem	M	S/D
Family strengths	1				3.78	.7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79**	1			2.99	.32
Self-efficacy	.365**	.583**	1		3.72	.69
Self-esteem	.412**	.454**	.637**	1	3.58	.72

\*\* $p<.01$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상관( $r=.637, p<.01$ )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 $r=.583, p<.01$ ),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 $r=.454, p<.01$ ) 순이었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가족건강성의 평균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3점을 초과하여 중간을 상회하였다. 반면 대인관계능력은 2.99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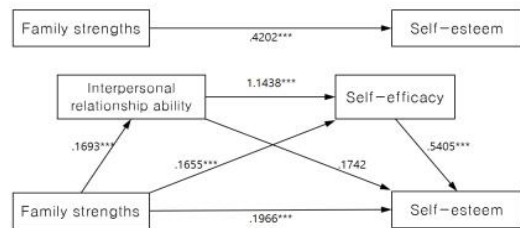
### 3.3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직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 모델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3과 Fig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가족건강성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1693,  $p<.001$ ), 자기효능감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1655,  $p<.001$ ),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1966,  $p<.001$ ).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1.1438,  $p<.001$ ),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1742,  $p>.05$ ).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5405,  $p<.001$ ).

한편 가족건강성에서 자아존중감간 총효과는 .4202이었다가 매개변인인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이 투입되면서 가족건강성에서 자아존중감간 경로의 총효과 .4202( $p<.001$ )는 직접효과 .1966( $p<.001$ )로 감소하였다.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총효과보다 작은 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중 매개효과 즉, 간접효과를 검증되었다.



\*\* $p<.001$

Fig. 1. Double mediating effect model

Table 3.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variable	coeffect	se	t	p	LLCI*	ULCI**
Mediating variable model(D/V: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nstant	2.3600	.0864	27.3245	.0000	2.1901	2.5299
Family strengths	.1693	.0225	7.5356	.0000	.1251	.2135
Mediating variable model(D/V: Self-efficacy)						
Constant	-.3343	.2942	-1.1363	.2567	-.9130	.2444
Family strengths	.1655	.0462	3.5856	.0004	.0747	.2563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1438	.1034	11.0586	.0000	.9403	1.3472
Mediating variable model(D/V: Self-esteem)						
Constant	.3067	.2853	1.0752	.2830	-.2544	.8679
Family strengths	.1966	.0455	4.3176	.0000	.1070	.286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742	.1169	1.4909	.1369	-.0556	.4041
Self-efficacy	.5405	.0527	10.2517	.0000	.4368	.6442
Total effect, Direct effect						
Division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4202	.0505	8.3248	.0000	.3209	.5195
Direct effect	.1966	.0455	4.3176	.0000	.1070	.2861

\*LLCI=lower limit within 95% confidence interval of boot indirect effect  
 \*\*ULCI=Upper limit within 95% confidence interval of boot indirect effect

Table 4. Verification of indirect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Indirect effect				
Path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Total effect	.2236	.0378	.1535	.3005
Ind1: Family strengths→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Self-esteem	.0295	.0210	-.0113	.0721
Ind2: Family strengths→Self-efficacy→Self-esteem	.0895	.0279	.0363	.1456
Ind3: Family strengths→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Self-efficacy→Self-esteem	.1047	.0230	.0663	.1544
Ind1-Ind2	-.0600	.0366	-.1346	.0104
Ind1-Ind3	-.0752	.0336	-.1495	-.0177
Ind2-Ind3	-.0152	.0368	-.0932	.0499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를 bootstrap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와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는 bootstrap의 상한 값과 하한 값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가족건강

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의 간접효과는 bootstrap의 상한 값과 하한 값에 '0'이 존재하여 간접효과가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매개효과 크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Ind3인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는 Ind1인 대인관계능력의 간접효과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Ind1인 대인관계능력의 간접효과와 Ind2인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Ind2인 자기효능감과 Ind3인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의 간접효과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교육계열에서 다른 전공계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계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차이를 보인 이유는 진로의 다양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22]. 대학생들의 진로 다양성은 졸업 이후 직업 선택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계열 집단은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업적 선택이 다른 계열보다 직업의 선택 폭이 넓다.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 흥미, 적성뿐만 아니라 보수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23]. 대학생 시기는 중고등학생 청소년과 성인 시기에 비하여 지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도 안정적으로 높아지며 성별 차이에서 비롯되는 자아존중감을 상쇄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가족건강성, 대인관계 능력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24],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이 정적 상관관계[25]를 보였다는 연구결과 등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환경을 개선하고 타인과의 교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인정과 허용이, 구성원 간의 존중 및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측면에

서 타인과의 적절한 교류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은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맥락적으로 일치한다[7, 8, 13, 15]. 가족건강성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이며 일차적인 환경이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차적으로 그들의 환경에 대한 소통 능력으로도 드러난다[24]. 이러한 소통능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한 높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은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들의 내재적 심리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낮은 환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또래와의 소통과 관계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공동체 활동 강화와 관련 대학생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내 교육과 특별 과제 수행이다. 즉, 학교에서 실제 성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활동, 성공적인 경험에 대한 관찰 활동, 자기 설득을 하는 자기암시 활동, 그리고 정서적인 각성 활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로써 낮은 가족건강성으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해 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 매개효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보다 집단을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N. Rathi, R. Rastogi. (2007).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3(1), 31-38.
- [2] N. Lee. (2018)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ociality, Morality, Citizenship and Characte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6), 267-286.
- [3] V. R. Wilburn, D. E. Smith. (2005).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40(157), 33-45
- [4]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SBN0691028052
- [5] S. Coopersmith. (1965).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rinceton.
- [6] W. Huitt. (2004). Self-concept and self-esteem. *Educational Psychology Interactive*, 1, 1-5.
- [7] B. H. Lee. (2014). The Effects of the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Perceive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ring Attitude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4), 57-74. DOI: 10.7466/jkhma.2014.32.4.57
- [8] S. A. Choi. (2018).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lf-Efficacy o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Line Dance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Dance*, 36(4), 317-339. DOI: 10.15726/jkd.2018.36.4.014
- [9] Seo, K. S., & Cho, K. M. (2019). A study of association between teenager's beauty related youtube usage motivation and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5(4), 271-282. DOI: 10.18208/ksdc.2019.25.4.271
- [10] J. H. Lee., J. H. Oh., H. K. Kim. (2019). The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University Adaptability on the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6(1), 362-370. DOI: 10.12925/jkocs.2019.36.1.362
- [11] M. H. Kim., E. J. Choi. (201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fter-School Beauty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19(4), 69-79. DOI: 10.18693/jksba.2018.19.4.69
- [12] Y. J. Yoo., I. S. Lee., S. K. Kim & H. J. Choi. (2013).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 (KFSS-II).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4), 113-129.

[13] H. J. Koo & H. J. Moon . (2019). The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Family Strength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8), 224-239.  
DOI: 10.5392/JKCA.2019.19.08.224

[14] B. H. Yang. (2017). The Effect of Social Competence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 Skill of Juvenile Delinquents.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1(1), 45-61.

[15] H. S. Kang & K. H. Lim (2013). The influence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in jeollanam-do.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481-500.  
DOI: 10.15703/kjc.14.1.201302.481

[16]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ISBN0716726262

[17] E. J. Eo & Y. J. Yoo. (1995).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13(1), 145-156.

[18] C. D. Kim & S. I. Kim.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Develop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Campus Life & Culture*, 35(1). 83-95

[19] Y. A. Song.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eneral Self Efficacy Scal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 M. Rosenberg.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52.

[21] T. Lloyd, R. P. Hastings. (2009). Parental locu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34(2), 104-115.  
DOI: 10.1080/13668250902862074

[22] M. Jeong. (2019).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vice. *Tourism Research*, 34(2), 179-200.  
DOI: 10.21719/IJTMS.34.2.9

[23] N. M. Kim., S. J. Chung., T. E. Kim., S. H. Ahn., M. J. Lee., M. S. Chang & S. R. Choi. (2016). A Study on the Gap between Subjective Age and Real Age,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lothing Benefits Pursui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of Middle-Aged Consumers.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18(2), 127-144.

[24] Y. J. Youn, M. S. Lee.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strength, Parental Monitoring,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1), 105-122.

[25] S. Youm, L. Kang. (2020). The Effects of Middle-aged Interpersonal Ability on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of Severity and Differences Between Gender Group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2), 317-330.  
DOI: 10.22143/HSS21.11.2.22

[26] J. Y. Hong. (2014). *The relationship of medical social worker's values, knowledge, skills and empowerment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신 은 미(Eun-Mi Shin)

[경력]



- 2017년 2월 : 한서대학교 가족상담학과(석사)
- 2020년 2월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관심분야 : 상담, 가족상담

· E-Mail : smslovess@naver.com

이 종 우(Jong-Woo Lee)

[경력]



- 1988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석사)
- 1992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박사)
- 2017년 8월 : 서울사이버대학교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석사)
- 1994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보건

관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교육, 가족치료

· E-Mail : jwlee@jj.ac.kr

이 화 성(Hwa-Sung Lee)

[경력]



- 2009년 8월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미술치료전공(석사)
- 2017년 2월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과 가족상담전공(박사수료)
- 2020년 11월 ~ 현재 : 아원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부부, 가족상담

· E-Mail : mars2m@hanmail.net